

#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5월 / 통권 542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법구경 (法句經)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不放逸)은  
불사(不死)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戒爲甘露道	放逸爲死徑
계 위 감 로 도	방 일 위 사 경
不貪則不死	失道爲自喪
불 탐 즉 불 사	실 도 위 자 상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다정불심 / 윤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5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천일기도 500일 회향/입재 안내

부처님오신날 진해 제등행렬 안내

부처님오신날 대광사 봉축법요식 안내

제26회 대광사 산사음악회 안내

대광사 템플스테이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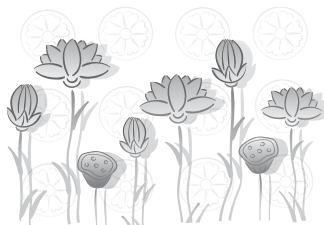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 다정불심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아들 하나 뿐인 아버지가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 어디를 가드라도 아들과 같이 다니곤 했다.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되어 언제나 처럼 아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흥정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없어졌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낯선 나라의 풍물들은 어린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이것 저 것 돌아보다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아이는 결국 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고아가 되고 말았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집으

로 돌아오긴 했지만 결코 포기 할 수 없던 아버지는. 언젠가는 찾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아이의 그림을 나누어주고 찾아주길 당부했다. 언제나 그 나라로 가게 되면 찾아 돌아다녔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부탁하곤 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면 물려주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모으며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이십 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얻어먹으며 다니는 중에 어찌어찌 발길 따라 그곳까지 오게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매에도 잊지 못하던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봤다. 너무도 기쁜 아버지는 사람들을 시켜 무조건 좋은 옷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 좋은 집에 재우게 했다. 다음날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고 사람들에게 잘 보살펴 지키게 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아들은 몰래 달아나버렸다. 부잣집에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까 해서 왔는데 느닷없이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까지 주면서 사람들이 지키면서 보살피니까 혹시 무슨 희생물로 자기를 잡아죽이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아들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고, 도망친 이유를 알게 된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을 찾아가게 했다. 살살 달래서 뒷간 치우는 청소부 일을 하게했다. 적당한 임금과 거처도 주게 했다.

그렇게 데려온 아들을 점점 나은 직책을 주고 나은 보수를 주면서 차츰 가족들과 가까워지게 하고 집안일에도 익숙해지게 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이제 어느 정도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가족과 친지와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아들에 대한 전후 사정을 들려주고 이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선언했다."

'법화경 신해품'에 있는 말씀이다. 아버지는 부처님이시고 아들은 중생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고 걱정하심이 법화경 신해품 속의 아버지와 같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매양 중생을 걱정하며 보살피고 있지만 중생은 기회만 있으면 멀리 달아나려는 아들과 같다.

온갖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온갖 방법으로 달래시며 노심 초사 중생을 이끌지만 아직도 어리석은 그들은 마치 실패품 속의 아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멍살 잡혀 스스로 고통 속을 헤매고 있음이다. 얼마나 부처님은 안타까우실 것인가? 중생을 사랑하심이 외아들 사랑하심 같으시거늘 그래서 아버지의 알뜰한 마음으로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물려주려 하거늘 중생은 피하려고만 하니 어찌 할꼬?

부처님 자비 안에서는 참새도 독수리도 심지어 나비도 벌도 평등한 중생으로 함께해야 할 존귀한 생명이다. 사자도 토끼도 코끼리도 인간도 모두 귀한 목숨으로 지구라는 공동 공간의 공동체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인간만이 제가 주인이라 착각하여 자연을 해치고 생명을 살상하고 공동체 공간을 더럽혀서 자신도 고통당하고 모두를 괴롭게 한다. 다만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다. 부디 부처님 절대 평등의 자비를 깨달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빌어본다.

## 『법구경』해설 - 15

### 사마와띠와 마간디아 왕비 이야기 - ①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제 1장 앞의 계송 20까지는 대구(對句), 즉 선악의 업력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는 천상과 지옥의 과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번 호부터는 제 2장 불방일(不放逸)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밝혀 둔다.

부처님께서 꼬삼비 근처의 고시따 사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삼비국 우데나왕의 왕비와 관련하여 21~23계송을 읊으시었다.

특히 여기서 우데나왕은 부처님께서 33천에 계시는 모후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하여 잠시 꼬삼비국을 떠나 계실 때, 부처님이 그리워 깊은 병에 걸렸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국왕을 위해 전단향나무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였다. 이에 완성된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 우데나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조성된 불상이고, 우데나왕은



다른 전적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전왕으로 불리는 분이다.

### 우데나(우전)왕의 탄생 설화

어느 때 인도 변방의 작은 나라 알라깁빠를 알라깁빠왕이 웨타디바가는 웨타디바가왕이 각기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로 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부왕이 죽자 그들은 자연스레 왕위를 물려받고 나라를 통치했다. 그들은 가끔 만나 함께 지내곤 했는데, 인간의 생사(生死)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만 한다. 이런 세속의 삶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우리는 출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들은 왕국을 아들과 부인에게 넘겨주고 출가 사문의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 머무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수행할 지를 논의 했다.

“그대는 저 산으로 나는 이 산으로 떨어져 살도록 하세. 보름마다 포살일(의무계율을 한꺼번에 암송하는 날)에 만나서 법담을 나누도록 하세.”

그러다 잠시 후, 서로에게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즐거움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만나지는 말고, 단지 상대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만 하세. 보름마다 산꼭대기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기로 하세. “

이후 그들은 불을 피워 연기로써 연락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웨타디빠가는 죽어서 큰 위력을 지닌 천신으로 태어났고, 반면 알라깁빠는 보름이 지나도록 건너편 산꼭대기에 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친구이자 동료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웨타디빠가는 친구를 만나고자 천신의 모습을 숨기고 여행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알라깁빠에게 가서 산에서 수행하는 연유 등 몇몇의 이야기를 나눈 후, 내가 건너편의 수행자임을 밝히고, 지금은 큰 위력을 지닌 천신으로 태어나 이렇게 벗님을 만나기 위해 왔노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지내는 데 어려운 점이나 골칫거리 같은 일은 없는지 묻는다.

이에 알라깁빠는 코끼리가 수행처소를 어리럽히고 성가시게 하여 쫓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자 웨타디빠가는 알라깁빠에게 코끼리를 부리는 삼현금(三絃琴)을 주고, 또한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이 당시 코삼비의 왕은 빠란따빠였다. 어느 날 그는 만삭의 아내와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코끼리 어금니만큼 큰 부리의 거대한 새가 허



공을 가르며 날아와 와락 달려들더니 거대한 발톱으로 그녀를 움켜쥐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왕비는 새에게 붙잡혀 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본래 사람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놀란 새가 허공에서 나를 떨어뜨리겠지? 그러면 난 공중에서 떨어져 뱃속의 아이와 함께 갈기갈기 찢기고 말 것이다. 기다렸다가 새가 내려앉아 나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 쫓아버려야겠다.’

그녀는 이렇게 지혜를 짜내 참고 견뎠다.

이윽고 히말라야의 어느 산 정상 부근까지 날아온 큰 새는 가지가 얽히고설켜 큰 천막과 같은 반얀나무에 왕비를 내려놓고는 하늘을 올라다 보았다. 왕비는 바로 이 순간이 새로 쫓아버릴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여기고 두 손을 깍지 껴 배위에다 올려놓고 짓 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내질렀다. 새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도망쳐버렸다.

해가 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와 연약한 왕비는 거의 초주검이 됐다.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이 다가오자 구름을 흩어지고 따사로운 햇벌이 비칠때 쫘 아이가 태어났다. (다음 호에)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5월 1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15일 : 천일기도 500일 회향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 5월 16일 : 천일기도 600일 입재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 5월 17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19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4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천일기도 500일 회향

- 5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천일기도 600일 입재

- 5월 16일(토)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대광후원회

(2026.3.19.~4.19.)

황두관 1만원	변창인 2만원	이우권 3만원	박진호 10만원
이순남 1만원	김병문 2만원	정연수 3만원	이병정열정영어 20만원
정진이 1만원	홍승운 2만원	정대식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박미애 1만원	이인숙 2만원	차재원 5만원	
송성수 1만원	김태희 2만원	김주영 5만원	
이경화 1만원	구자민 3만원	문경봉 5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지혜의말씀 후원(2026.3.19.~4.19.)

김영우 10만원 / 김종열 5만원 / 송민기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청향심(영)1만원

### ♥ 설담장학회(2026.3.19.~4.19.)

회주스님 2천만원 / 주지스님 10만원 / 신애란 10만원 / 김승화 5만원 / 김세훈 5만원  
 김기철 5만원 / 김태희 3만원 / 김단우 3만원 / 제영길 3만원 / 진병찬 3만원  
 이유림 2만원 / 이윤정 2만원 / 박임선 2만원 / 구자민 2만원 / 변지오 2만원  
 이경화 1만원 / 이순남 1만원



## 부처님오신날 진해 제등행렬

■ 5월 17일(일) 오후 6시 ■ 진해 중원로터리

## 부처님오신날 대광사 봉축법요식

■ 5월 24일(일) 오전 10시 설법전

제2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 대광사 산사음악회

■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6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대광사 템플스테이

# ■ 낚 용서하는 낚 [ 휴식형 ]

- ▷ 참가비 : 1인당 5만원  
(미취학 : 1만원, 초등 : 2만원, 청소년 : 3만원)

# ■ 자연과 나~

편백숲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 체험형 ]

- ▷ 참가비 : 1인당 7만원(고등학생, 성인만 가능)
- 공무원, 군무원 1인당 1만원 할인 (동반 1인까지)
  -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 1인당 40%할인 (동반 1인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